

신안 도초에 스마트팜 임대단지 조성

농식품부 사업 선정 57억원 확보 청년 농업인에 저렴한 비용 임대 4ha...내년부터 히트펌프 등 구축

전남도가 청년 농업인 인구 유입을 위해 스마트팜을 조성,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주시기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안 도초도에 각종 최신 시설로 조성되는 스마트팜 임대단지가 들어선다. 청년농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2024년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과 저탄소에너지 공동 이용시설 사업에 신안군이 선정돼 총사업비 5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은 시설원예단지의 집적화를 위해 진입도로, 용배수로, 전기 및 오페수처리 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저탄소에너지 공동 이용시설 사업은 지열이나 폐열을 활용해 냉·난방시스템을 구축, 온실재배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에 29억원, 저탄소에너지 공동 이용시설에 28억원 등으로, 국비가 70%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시설원예단지의 규모화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신안군을 선정했다.

신안군은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유입 유도를 위해 도초면 발매리 일원에 2022-2023년 사업으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4ha를 조성하고 있다.

2023년부터 5.7ha 부지에 진입도로, 용배수로 등 원예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온실 면적 4ha를 냉난방할 지열 천공 및 히트펌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팜 온실은 향후 농식품부의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시금치와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할 계획이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신안에 스마트팜 원예단지가 조성되면 내년 준공될 지역특화 임대형 팜과 연계해 미래 농업인력 양성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월 농식품부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선정돼 2023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도초면 발매리 일원에 4ha 규모의 바나나 재배 온실을 신축한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석 英 총리 취임...버킹엄궁서 찰스 3세 알현

트리스 전 총리는 국왕에 사임 보고

리시 수석 영국 총리 내정자가 25일(현지시간) 57대 총리로 정식 취임한다.

총리실은 수석 내정자가 25일 오전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알현한다고 24일 밝혔다.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국왕이 총리 내정자를 만나 내각을 구성하라고 요청한 뒤 취임을 승인한다.

수석 내정자는 오전 11시35분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 앞에서 관례대로 취임 연설을 할 예정이다.

24일 단독 후보로 보수당 대표 및 총리 내정자로 결정된 수석은 9월 8일 왕좌에 오른 찰스 3세가 승인한 첫 총리가 된다.

이에 앞서 리즈 트리스 총리는 오전 9시 마지막 내각 회의를 하고 오전 10시 15분 총리실 밖에서 연설한 뒤 버킹엄궁으로 가서 찰스 3세에게 사임을 보고한다.



리시 수석 영국 보수당 신임 대표 및 총리 내정자가 24일(현지시간) 런던 보수당 선거운동본부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트리스 총리는 9월 6일 스코틀랜드 벨모럴성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알현한 뒤 총리로 임명됐다.

96세 고령인 여왕의 편의를 위해서 이례적으로 구·신임 총리가 공군기를 타고 1000마일(1600km) 왕복하는 여정을 밟았다. 여왕은 이를 뒤에서 서거했고 트리스 총리는 여왕 재위 70년간 거쳐 간 15번째 마지막 총리가 됐다. /연합뉴스

신규 확진자 한달여만에 4만명대...코로나 재유행 조짐

광주·전남지역 2000명 육박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한달여 만에 4만명대로 올라섰고, 광주·전남지역도 2000명을 육박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3759명 늘어 누적 2535만 5350명이 됐다고 밝혔다.

주말 진단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적었던 전날(1만4302명)보다 2만 9457명이 급증했다.

1주일 전인 지난 18일(3만 3223명)과 비교하면 1만536명 많고, 2주일 전인 11일(1만 5466명)보다는 2만 8293명 늘어 2.8배 수준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1일부터 다섯째 전주 대비 증가 추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9월 21일(4만1264명) 이후 34일만에 4만명을 넘었다.

광주·전남지역도 코로나19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광주는 843명, 전남은 1028명을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 주만해도 평일 하루 6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이번 주 들어 800명대로 확진자 신규 발생이 늘어났고, 전남은 지난 주 평일 기준



2022 광주시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이 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광주지역 5개 구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안전본부 등 감염병 관리 기관 관계자들이 개인 보호구 착용, 탈의 훈련 실습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00~7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번 주 들어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진정세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 유행이 겨울철에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불산단 전봇대 2024년까지 모두 뽑아낸다

전선 지중화사업 국가사업 선정 내년부터 223억 투입 사업 추진

15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전봇대(광주일보 2022년 8월 4일자 1면)들이 2024년까지 하나씩 제거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25일 “대불국가산업단지 전선 지중화사업이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국비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2년간 223억원을 투입해 5.07km 구간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불국가산업단은 국내 유일 중소형 선박 블록, 기재 생산 핵심기지로 제작된 대형 블록은 육로를 통해 대형 조선소로 운송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지의 전봇대와 전선은 그동안 블록 수송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기업들은 블록 운송을 위해 매년 전선을 피해 우회하거나 전선 절단 후 재연결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겪고 있다. 선로 절단과 재연결 비용은 한번에 500만원 이상이 소요됐다.

지난 2008년 대불산단 전봇대가 기업 성장발

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 이슈가 되면서 전봇대 일부가 제거되기도 했으나 2010년부터 재원 부담 등으로 지중화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또 200억원이 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불국가산업단지 선박 블록 운송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전봇대가 내년부터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정부의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학교, 전통시장 인근 등 일부 구역에만 적용되고 있었으나 전남도는 수차례 국회, 산업부, 한전 등을 방문해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고시 개정을 통해 국비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오래된 이, 전봇대가 사라지게 돼 기업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조선산업의 안정적 인력수급과 친환경·스마트화를 통한 산업 체질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권익위 “층간소음 다툼 경찰출동 의무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층간소음 다툼이나 반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래에 따라 경찰 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사자 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화 전문가로 주관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연계

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도 권고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과태료 찬성이 88.4%였다고도 덧붙였다.

권익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재하면서도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에서 규제해 보복소음 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 업무를 지자

체로 확대토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수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아울러 바닥구조성능이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토록 권고했다. 또 건축소재 성능 감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처분하기 힘든 모든 부동산 교환
하실분. 010-3605-5000

지분 임야, 땅 샅샅이
맹지사절. 010-3605-5000

발생암매각공고

1. 입찰신청-발생등록 매각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역)에서 토석량 약 384,170㎥(자연상태기준) 상당. 단, 현장 사정에 따라 전체 수량이 변경(증,감) 될 수 있음.

구분	단위	토사	종화암	연장토	합계	비고
수량	㎥	-	-	384,170	384,170	자연상태

2. 현장설명회,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장소: 호남고속철도2단계 7공구 현장사무실)
가. 현장 설명 회: 2022년 11월 01일 14시
나. 입찰등록마감일: 2022년 11월 08일 14시
다. 개찰 일 시: 2022년 11월 08일 15시
라. 낙찰 자 선정: 2022년 11월 14일
(각 입찰자의 경제성 평가 산정을 위해 개찰 5일 이후 낙찰자 발표)

3. 입찰방법: 입찰 매각 입찰
가. 낙찰자 결정: 입찰자가 제시한 1㎡당 원세액이 최고인 업체를 낙찰(예정자)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고가격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운반거리가 가장 가까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계약대인의 운반거리 선정 방법에 의함)
단, 설계운반거리 이내 업체(도급단)가 이내 업체가 투찰 시 경쟁성 검토(도급운반비가 지역(당초-신규) + 원세액 투찰단)가, 중 가장 높은 업체를 통해 낙찰(예정자)자로 선정
나. 입찰 참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시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4. 계약약수 및 완료일
계약일 - 2026년 06월 22일

5.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의 경우
1) 현장설명회 현재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골재 선별 및 파쇄암을 동등한 자원으로 용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골재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현장설명회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장 또는 골재 생산시설 위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암 처리가 가능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함)

나. 골재사항
1) 현장설명회 기준으로 세급이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장설명회 시 국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 시 제출한 반입장(의정장 또는 골재 생산시설)은 발파암 반입, 골재생산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법률을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함

6. 입찰업체 제출서류(입찰관련 서류는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
가. 골재생산시설 또는 사도장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위치도 1부
나. 골재 선별 파쇄암 사업자 등록증 1부
다. 법인인입찰보증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사도제 완납증명서 1부
마. 의정장(대리인 참석시) 및 재직증명서 1부
바. 골재채취 신고 수리증 1부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회,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처
• 매 각 자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 계약대인 : 삼부토건(주)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원성리 503
• 기타 문의 : 시공사 삼부토건(주) 061-281-2709 담당자 정성돈 과정
건설사업관리과1담당 수성현(지내야) 061-281-3088 담당자
* 우편접수 불가

2022년 10월 26일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역-목포) 제7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매각대리인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하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재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 합 계 -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C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용택(000509-XXXXXX)
• 최후주소: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길 168

피상속인 망 김용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법원 2022년 단4042호로 신청하여 2022년 10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채권자 신고를 하시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0월 26일
• 상속인: 김진숙(860907-XXXXXX)
광주 광산구 장신로 326, 103동 1104호(신창동, 동아아파트)
• 신고기간: 2022. 10. 26 ~ 2023. 1. 5.
• 채권신고처: 상속인 김진숙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용우(400417-XXXXXX)
• 최후주소: 광주 서구 월성로 131-1, 바롬 403호 (영촌동, 진성아파트)

피상속인 망 김용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년 단1080호로 신청하여 2022년 10월 1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채권자 신고를 하시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0월 26일
• 상속인: 1. 김금희(630729-XXXXXX)
광주 북구 우치로537번길 10, 101동 2002호(일곡동, 동아아파트)
2. 김영래(671221-XXXXXX)
광주 북구 우치로537번길 10, 101동 1102호(일곡동, 동아아파트)
• 신고기간: 2022. 10. 26 ~ 2023. 1. 5.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김금희의 주소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

자본감소공고

당회사는 2022년 10월 25일 총사원의 동의로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0원을 금10,000,000원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결의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2년 11월 26일까지 이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6일
유한회사 혁신물류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16
이사 김영균

70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동 526-3761 • 신안 222-8171
• 광신 571-7658 • 오지 266-7601
• 용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3-6836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송암 222-9054
• 충장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신성 673-6836 • 송하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 369-1625 • 문흥 376-7153
• 치평 376-6511 • 풍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문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청단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